

핵심실기역량강화교육이 간호학생의 핵심역량과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신화진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ffect of Core Practical Capacity Enhancement Training on the Key Competence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Hwa-Jin Shin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Kojj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하여 실습위주의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과목 학습이 간호학생의 핵심역량과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을 2주간 1일 8시간씩 네 영역의 핵심간호수기영역 교육을 실시한 그룹과 전통적인 강의중심 교육을 받은 그룹으로 나누고 15주간 임상실습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가 보고하게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chi-square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비판적사고성향과 임상실습만족도 부문의 가설은 지지되었으며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부문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학생의 비판적사고성향과 임상실습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교육에서 효과적인 실습교육 중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임상실습만족도, 핵심실기역량강화, 비판적사고,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Abstract For effective clinical practice edu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s of learning practical subjects on the core competency and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 practice on nursing students. The research subjects were divided into groups that conducted four core nursing education classes eight hours a day for two weeks, and groups that received traditional lecture-oriented education, and a questionnaire was prepared and reported by themselves after 15 weeks of clinical practic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chi-square test, and t-test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e findings supported the hypotheses in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he hypotheses in leadership, problem-solving and communication skills were rej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practical training for strengthening core practical skill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ritical thinking tenden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refore, it can be used as an effective practical training arbitration in nursing education.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ore practical skills training courses, Critical thinking, Leadership, Problem-solving skills, Communication skills

*Corresponding Author : Hwa-Jin Shin(hjshin@koje.ac.kr)

Received April 27, 2020

Accepted July 20, 2020

Revised June 11, 2020

Published July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계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상자인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서 임상실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획득하는 핵심역량기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1,2]. 한국간호교육평가원[3]에서 제시하는 7가지 간호사핵심역량은 교양 및 전공지식 통합적용능력, 전문 분야 간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비판적 사고, 법적·윤리적 책임인식 능력, 리더십 함양, 간호연구능력, 국제 보건 의료정책변화 능력 등이다[2]. 선행 연구에서 간호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간호대학생의 주요 핵심역량은 간호 실무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문제해결능력으로 보고되고 있다[4-6]. 또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사 업무수행 중 중요도와 빈도가 높은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핵심기본간호술을 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함으로써 임상실습교육의 개선, 임상현장에 대한 적응, 간호전문직이 요구하는 간호사의 핵심역량을 갖추고[7],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임상실무현장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간호실무 교육과정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8].

간호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이론과 실습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움으로써 이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 양성하는 것이다[8].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실습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8,9]. 그러나 현재 병원현장에서는 간호 대상자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요구와 의료사고의 위험성, 예측 할 수 없는 긴박한 병원환경, 간호 인력부족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간호수행보다 관찰위주의 임상실습교육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10]. 이런 문제는 간호학생이 추후에 간호사로 근무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간호 행위를 습득하지 못하여 실제 환자간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졸업 후에도 곧 바로 임상실무에 근무하지 못하고 다시 교육해야하는 시간적 비용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은 체계적으로 질적인 간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8,11].

이런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에 반해 간호학생들은 다양한 임상실습환경에서 대상자들의 문제 상황에 인식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임상실습 적응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병원환경에서 임상실무경험의 제한성으로 발생하는 미흡한 실무수행능력은 간호교육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12].

간호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8],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또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빈도가 많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14].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15]에서도 실습 후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간호학생의 자신감이 향상되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정도가 높을수록 간호학생의 자신감이 향상되었다[16,17].

그러나 이러한 핵심기본간호술의 학습효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양한 임상실무 환경을 이해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상실습 전 단계에서 학습하는 교과목을 보다 실무에 근접하여 기존 전통적 강의중심 교육이 아닌 실습위주로 운영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측정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증대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간호교육평가에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과목 학습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과목을 학습함으로써 비판적사고성향,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인 비판적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인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인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4.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5.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1.3 연구의 가설

가설1.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비판적사고성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2.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리더십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3.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

지 않은 학생들보다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4.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5.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받지 않은 학생들의 비판적사고성향,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6년 8월1일부터 2017년 9월 1일까지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P시에 소재하는 P대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 40명과,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받은 G시에 소재하는 C대학 간호학과 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 수 산정을 위해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7, 검정력(1-β)=0.85, 신뢰수준= 0.05로 하여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 38명,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38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자를 고려하여 각 그룹 당 40명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표집하였으나 설문지 불성의 답변으로 인한 각 군당 2명 씩의 탈락자를 제외하고 38명으로 하였다.

연구진행 전에 연구진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본인이 연구참여를 희망하지 않으면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율성을 설명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2.3 연구진행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2주간 1일 8시간씩 핵심간호수기영역1(응급환자간호), 핵심간호수기영역2(산부인과환자간호), 핵심간호수기영역3(신생아환자간호), 핵심간호수기영역4(수술실간호) 등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수업을 실시한 38명 학생

에게 15주간 임상실습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가 보고하게 하였다.

전통적인 강의중심 교육이 이루어진 38명 학생은 15주간 임상실습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가 보고하게 하였다.

2.4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학생의 비판적사고성향,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4.1 비판적사고성향

비판적사고성향은 개인적이거나 전문적 업무에 있어 당면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 성향을 말한다[18]. 본 연구에서 비판적사고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박선환[19]이 개발하고 이점덕, 이정숙[20], 배두이[2]가 사용한 비판적사고성향 측정도구이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지적열정/건전한 회의성(7문항), 지적 정직성(6문항), 신중성(4문항), 객관성(3문항)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점덕, 이정숙[20]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6이었다.

2.4.2 리더십

리더십 중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통해 효과적인 관리능력함양을 위하는 것을 의미하며[21], 본 연구에서 리더십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Manz[22]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를 김한성[2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배두이[2]가 사용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측정도구이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자기기대(3문항), 리허설(3문항), 목표설정(3문항), 자기보상(3문항), 자기비판(3문항), 간헐적 사고(3문항)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배두이[2] 연구에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6, 본 연구에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9이었다.

2.4.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명료화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대안을 개발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 및 그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본 연구에서는 Lee[24]가 개발한 Process Behavior Survey를 우옥희[25]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배두이[2]가 사용한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이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문제발견(5문항), 문제정의(6문항), 문제해결(4문항), 문제실행(5문항), 문제해결검토(5문항)로 총 25문항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배두이[2]연구에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본 연구에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이었다

2.4.4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 평가 도구로 Rubin[26]이 개발한 인간관계 의사소통능력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개념에 허경호[27]가 7가지 개념을 수정 보완한 도구를 배두이[2]의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이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자기노출, 역사사지, 사회 긴장완화, 주장적,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배두이[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2.4.5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평가도구로는 이숙자[28]가 개발하여 구현영, 임형석[2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배두이[2]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이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써 각 4문항으로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임상실습만족도 평가가 높음을 의미한다. 구현영과 임형석[2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4.6 핵심실기역량강화실습

핵심실기역량강화실습은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간호학과 전공교수 4인이 간호대학 3학년 학생이 임상실무에 나가기 전 2주 동안 전공분야의 응급환자간호실무(응급환자환의교환, 응급실입원관리, 응급환자약물투여, 응급환자간호사정,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적용)8시간실습교

육, 산부인과환자간호실무(유치도뇨, 태아곤란증 임부간호, 도플러를 이용한 태아심음청진, 태아건강사정) 8시간 실습교육, 신생아환아간호실무(Apgar 점수 측정, 눈 간호, 제대 간호, 조제유수유법, 활력징후측정, 기저귀교환 & 속싸개싸기, 산소포화도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8시간 실습교육, 수술실환자간호실무(멸균물품 취급, 수술실 구역 구분 및 행동요령, 수술가운 및 장갑 착용 및 벗기, 수술 전후 간호) 8시간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임상실무 능력 향상시키기 위한 교내실습교육을 의미한다.

2.5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으로 SPSS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2.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chi-square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3. 비판적사고성향,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만족도는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과의 차이 비교 위해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수업군은 여자가 33명, 남자가 5명이었으며 강의중심교육군은 여자가 30명, 남자가 8명이었다. 두 그룹의 평균연령은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수업군 22.7세, 강의중심 교육군은 23.1세이었으며 건강상태는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수업군에서 매우건강 14명(36.8%), 건강 16명(42.1%), 보통 8명(21.1%)이었으며 강의중심교육군은 매우건강 11명(28.9%), 건강 17명(44.7%), 보통 8명(21.1%), 나쁜 편 2명(5.3%)이었다. 입학동기에서는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수업군에서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14명(36.8%), 타인의 권유 18명(47.4%), 취직보장 6명(15.8%)이었으며 강의중심교육군은 9명(23.7%), 타인의 권유 15명(39.5%), 취직보장 13명(34.2%), 기타 1명(2.6%)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는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수업군에서 매우만족 1명(2.6%), 만족 12명(31.6%), 보통 22명(57.9%), 불만 3명(7.9%), 강의중심교육군은

매우만족 2명(5.3%), 만족 10명(26.3%), 보통 21명(55.3%), 불만 4명(10.5%), 매우불만 1명(2.6%)이었다. 두 그룹의 학업성적 평균은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수업군 3.6점, 강의중심교육군은 3.5점 이었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수업군과 강의중심교육군의 일반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Table 1. Verification of homogenei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8)	χ^2 or t	P
		M±SD or N(%)	M±SD or N(%)		
Sex	Female	33(86.8%)	30(78.9%)	.835	.361
	Male	5(13.2%)	8(21.1%)		
Age(yr)		22.7±2.3	23.1±1.9	.798	.427
Physical condition	very good	14(36.8%)	11(28.9%)	2.390	.495
	Good	16(42.1%)	17(44.7%)		
	Normal	8(21.1%)	8(21.1%)		
	Not good	0(0%)	2(5.3%)		
Religion	Have not	23(60.5%)	23(60.5%)	.000	1.000
	Have	15(39.5%)	15(39.5%)		
Admission motive	Aptitude & interest	14(36.8%)	9(23.7%)	4.939	.176
	Other's Recommendation	18(47.4%)	15(39.5%)		
	Guarantee of employment	6(15.8%)	13(34.2%)		
	Others	0(0%)	1(2.6%)		
Satisfaction of School life	Very satisfied	1(2.6%)	2(5.3%)	1.681	.794
	Satisfied	12(31.6%)	10(26.3%)		
	Normal	22(57.9%)	21(55.3%)		
	Dissatisfied	3(7.9%)	4(10.5%)		
	Very dissatisfied	0(0%)	1(2.6%)		
Academic performance		3.6±0.3	3.50±0.3	-1.667	.100

3.2 가설검증

3.2.1 제 1가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비판적사고성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68.5점 강의중심교육군은 63.9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비판적사고성향 점수가 높아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2.

Table 2. The difference in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between the two groups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8)	t	P
	M±SD	M±SD		
Critical thinking attitude score	68.5±7.0	63.9±6.5	-2.929	.005

3.2.2 제 2가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리더십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64.2 점 강의중심교육군은 63.4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리더십 점수가 0.8점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 2가설은 기각되었다. Table 3.

Table 3. The difference in leadership between the two groups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8)	t	P
	M±SD	M±SD		
Leadership score	64.2±7.5	63.4±5.6	-.534	.595

3.2.3 제 3가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90.0점 강의중심교육군은 86.1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리더십 점수가 3.9점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 3 가설은 기각되었다. Table 4.

Table 4. The difference in Problem-solving skills between the two groups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8)	t	P
	M±SD	M±SD		
Problem-solving skills score	90.0±10.6	86.1±11.9	-1.492	.140

3.2.4 제 4가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57.9점, 강의중심교육군은 54.8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리더십 점수가 3.1점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 4가설은 기각되었다. Table 5.

Table 5. The difference in Communication skills between the two groups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8)	t	P
	M±SD	M±SD		
Communication skills score	90.0±10.6	86.1±11.9	-1.492	.140

3.2.5 제 5가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78.2점 강의중심교육군은 70.7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임상실습만족도 점수가 높아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6.

Table 6. The difference i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etween the two groups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8)	t	P
	M±SD	M±S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core	78.2±10.0	70.7±10.4	-3.166	.002

4. 논의

4.1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인 비판적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68.5점 강의중심교육군은 63.9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보다 비판적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78.2점, 강의중심교육군은 70.7

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임상실습만족도 점수가 높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배두이[2]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처음 경험하는 병원 임상실습에 나가기 전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함으로써 간호학생의 주요 핵심역량인 비판적사고성향의 향상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아짐을 실증하고 있다.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 빈도가 많아질수록 업무수행 자신감과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방순식[30]연구와 최동원[31], 오미영[32]에서도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이 많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미원[33]연구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정도가 높을수록 간호학생의 자신감이 향상되고, 오미영[32]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이라고 하여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실습환경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상현장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기 실습환경 마련은 쉽지 않은 실정이며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습전후 교내실습환경을 임상과 가장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학생의 핵심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조학순[34]연구에서 보듯이 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전 교내실습에서 할 수 있는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임상실습 시 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2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인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인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64.2점, 강의중심교육군은 63.4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리더십 점수가 0.8점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셀프 리더십을 측정한 결과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6점 보통

수준으로 나온 한용희, 박영례[35]의 연구를 보면 임상현장에서도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은 크게 향상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으로도 리더십 부분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리더십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더 많은 리더십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인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90.0점, 강의중심교육군은 86.1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3.9점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이숙자와 장금성[36]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임상 간호사들 대상으로 하여 측정된 결과 5점 리커트 척도에 3.2점으로 졸업시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점수를 측정된 배두이[2]연구 3.4점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 이는 본 연구에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으로 문제해결능력 부분은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57.9점, 강의중심교육군은 54.8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3.1점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임상 간호사들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측정된 이애경 등[37] 연구에서 5점 리커트 척도에 3.3점으로 졸업시점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측정된 배두이[2]연구 3.57점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에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으로 의사소통능력 부분은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간호대학교의 신설과 간호대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임상실습 장소의 부족, 환자 안정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임상실습이 직접적인 수행보다 대상자 관찰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38]. 이런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이 임상환경에서 적응력을 높이고 주요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습 전 교내실습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학과 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과목을 학습함으로써 비판적사고성향,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목적으로 2016년 8월1일부터 2017년 9월 1일까지 P시에 소재하는 P대학과 3학년 학생 대상으로 실험군 38명, G시에 소재하는 C대학 간호학과 3학년 대상으로 대조군 38명으로 실시하였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38명 학생에게 2주간 1일 8시간씩 핵심간호수기영역1(응급환자간호), 핵심간호수기영역2(산부인과환자간호), 핵심간호수기영역3(신생아환자간호), 핵심간호수기영역4(수술실간호)실시한 후 15주간 임상 실습 후 설문지 작성하여 자가 보고하게 하였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38명 학생은 전통적인 강의중심교육이 이루어졌으며 15주간 임상실습 후 설문지 작성하여 자가 보고하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chi-square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각 가설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1.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비판적사고성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t=-2.929, p=.005$).

가설2.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리더십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t=-.534, p=.595$).

가설3.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t=-1.492, p=.140$).

가설4.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t=-1.967, p=.053$).

가설5.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t=-3.166, p=.002$).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학생의 비판적사고성향과 임상실습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교육에서 효과적인 실습교육 중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대학 간 실습 운영 등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효과 검증 및 간호교육에 적용이 필요하고 연구의 혼동 변수를 고려한 실험 설계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H. Kim & J. H. Park.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ool for Evaluating Core Competencies in Nursing Cancer Patients on Chemotherap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2(5), 632-643.
- [2] D. Y. Bae. (2015).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on Graduation Time*.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yungnam.
-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Manual for Self-Assessment of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Seoul.
- [4] K. A. Shin & B. H. Cho. (2012).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1), 46-56. DOI : <https://doi.org/10.7739/jkafn.2012.19.1.046>
- [5] M. R. Bang & H. J. Jeon. (2013).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571-579. DOI :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571>
- [6] Y. I. Park et al. (2013). An Identification Study on Core Nursing Competenc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663-674. DOI :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663>
- [7]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Nurse's core competency and nursing program performance*. Seoul. DOI : <http://www.kabon.or.kr/120121127132143.pdf>
- [8] M. Y. Oh. (2016). *A Study on the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Experiences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Self-confid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Kong 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 [9] S. DeYoung. (1990) *Teaching nursing*. Addison-Wesley Nursing.
- [10] M. H. Cho & I. S. Kwon. (2007).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2), 143-154.
- [11] M. S. Yoo, I. Y. Yoo, Y. O. Park & Y. J. Son. (2002). Comparison of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in Different Instructional Methods for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3), 327-335. DOI : <https://doi.org/10.4040/jkan.2002.32.3.327>
- [12] J. J. Yang & M. Y. Park. (2004).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0(2), 271-277.
- [13] H. J. Jang & Y. K. Kwag. (2013).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9), 4380-4387.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3.14.9.4380>
- [14] S. S. Bang. (2014). *Relationship among essentials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performance, stress from work and work capability of new clinical nurse*.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Seoul.
- [15] P. Dillon. (2002). *The cognitive, competence and confidence development of baccalaur ate nursing students over an academic year with clinical experience*. Doctoral dissertation. Widener University, Chester.
- [16] M. W. Kim. (2003). *Development of objectives of nursing clinical education, based on the nursing core competency*.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17] Y. H. Kim, S. Y. Hwang & A. Y. Lee, (2014). Perceived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ew Graduate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37-46. DOI : [10.5977/jkasne.2014.20.1.37](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37)
- [18] N. C. Facione, P. A. Facione & C. A. Sanchez. (199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ement;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3(8), 345-350.
- [19] S. H. Park. (1998). *The effects of the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college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ility*.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University, Seoul.
- [20] J. D. Lee & C. S. Lee. (2006). The Effects of Preceptorship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2(3), 434- 443.
- [21] Y. K. Kim. (2009). *The Effect of Creative Problem-Solving Program on Leadership, Creativity and Creativity Problem-Solving of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 [22] C. C. Manz. (1998).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23] H. S. Kim. (2002). *Relationship between Self-Prediction and Job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24] J. S. Lee. (1978). *The effects of process behaviors on problem solving performance on various tes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Illinois.
- [25] O. H. Woo. (2000). *The Effect of Problem-Centric Learning on Problem-Solving Process according to the Level of Meta-Qualification of the Learner*.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26] R. B. Rubin, M. M. Martin, S. S. Bruning & D. E. Power. (1991).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development and test of a self-efficacy model*.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Atlanta.
- [27]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Asian Communication Research*, 47(6), 380-408.
- [28] S. J. Lee. (1980). Level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0(2), 41-52.
DOI : <https://doi.org/10.4040/jnas.1980.10.2.41>
- [29] H. Y. Koo & H. S. Im. (2013).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nts*, 13(1), 311-321.
DOI : <https://doi.org/10.5392/JKCA.2013.13.01.311>
- [30] S. S. Bang. (2014). *Relationship among essentials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performance, stress from work and work capability of new clinical nurse*. Doctoral dissertation. Sahmyook University, Seoul.
- [31] D. W. Choi. (2014).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Experiences on the Essential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184-191.
DOI :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184>
- [32] M. Y. Oh. (2016). *A Study on the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Experiences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Self-confid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Kong 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 [33] M. W. Kim. (2003). *Development of objectives of nursing clinical education, based on the nursing core competency*.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34] H. S. Cho. (2005). A Study on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Performance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2), .222-231.
- [35] Y. H. Han & Y. R. Park. (2013).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Job Involvement on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9(4), 462-469.
DOI : <https://doi.org/10.11111/jkana.2013.19.4.462>
- [36] S. J. Lee & K. S. Jang. (2017). The Effects of Action Learning on Nurses'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Emotional Creativity and Innovation Behavior.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Industry*, 8(2), 73-87.
DOI : <https://doi.org/10.12811/kshsm.2014.8.2.073>
- [37] A. K. Lee, J. Y. Yeo, S. W. Jung & S. S. Byun. (2013). Relations on Communication Competence, Job-stress and Job-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 *Journal of Korea Contnts*, 13(12), 299-308, 2013.
DOI : <https://doi.org/10.5392/JKCA.2013.13.12.299>
- [38] J. Yoon, K. J. Kim & M. S. Choi. (2013). The Effects of OSCE Appli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273-284.
DOI :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273>

신 화 진(Hwa-Jin Shin)

[상화]



- 2007년 : 을지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3년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1994년 ~ 2010년 : 을지대학병원
- 2014년 ~ 2018년 : 포항대학교
- 2018년 ~ 현재 :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핵심기본간호술, 고위험 아동, 아동학대 등